



한국어는 밥벌이다

한국어 원어민을 위한 해외취업 (외화벌이) 준비 가이드

PART 3

서류 전략

레주메 & 지원

사노 | 문과졸업생의 잘먹고사니즘

포스타입 채널 멤버십 전용

시작하기 전에 — 사노의 노트

"한국어는 밥벌이다..."

이제 스펙 쌓느라 기회비용 그만 들이자...

문송들이 더 이상 기회비용 들이지 않고, 내가 이미 장착한 최고의 무기! "한국어"라는 희귀 언어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 우리는 한국어 네이티브 이거 활용하자!"

그렇게 2024년 초부터 포스타입 채널 "문과졸업생의 잘먹고사니즘"에 한국어 이용해서 외화벌이하러 나가자, 밥 먹고 사니즘 해결 방안 포스트만 150개 (이것도 추정임... 더 많겠조 🙄) 넘게 쓴 것 같아요.

AI 말고 제 열 손가락으로 기본 5,000자, **커피 2잔 수혈하며** ☕ 꾸준히 올렸죠. 그렇게 쌓인 포스트를 클로드에게 모아 썰어달라고 하여 나온 핸디용 전자책입니다.

제가 쓴 포스트를 그대로 정돈만 하여 옮긴 게 아니라, 그 원료들 (제가 살면서 보고 듣고 느낀 "진짜" 경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의 "진짜" 품앗이) 토대로 클로드에게 광범위한 리서치를 맡겼어요. 세미나와 교차하며 팩트 체크에 신경 썼지만 AI가 그렇듯... 서술한 내용에 오류가 없을 순 없을 겁니다.

이 전자책을 집어드신 당신께 🙏

올해 상반기에는 외화벌이하러 비행기 타러 나갈 (혹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리모트로 근무 가능하고요),

달려 채굴용 연장 드신 멤버분들 꼭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돈 벌 수 있는 시간... 얼마 안 남았다. 😭

자, 아래부터는 클로드(제 하이드)가 재구성하여

하이드의 언어로 써내려 갑니다.

중간중간 사노도 끼들 순 있어요.

시작해볼까요? 🟡 레드 썸!

PART 3

서류 전략: 레주메 & 지원

PART 2에서 기억할 것

PART 2 경험 만들기 — 지원할 재료를 먼저 확보하자

재료는 확보 되셨지요? 카페 알바든 AI 트레이닝 잡이든 개인 프로젝트든 — 이제 그 재료를 외국계 리쿠르터가 6초 안에 훑고 소화할 수 있는 레주메로 바꿀 차례예요. 이번 PART3는 그 전략편입니다.

3-1. 레주메는 한 장입니다 — 혜자 선생님께 안식년을 드리자

외국계 구직 초짜 시절에 돌렸던 제 레주메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초짜 시절 썼던 레주메 일부를,

서류가 도통 안되요. 이게 다 00 선생님 때문입니다. 서류가 왜 안될까? <시급한 교정 2>

<https://posty.pe/19e5b5>

에 올려두었습니다. 가서 열람해보세요. 보자마자 어떤 인상이 드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해외 취업 유료 강의 저도 결제 한 적 있어요. 실제로 도움된 부분도 있고요. 유튜브 강의도 많이 들었고요. 영문 이력서 첨삭도 받았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죠.

더 나아가, 리쿠르팅 하는 지인이 있어 쪽팔림 (?) 무릎쓰고 피드백도 부탁했어요. 공통 분모가 나오더라고요.

✓ 읽기도 전에 한숨 나오는

✓ 할 말이 너무 많은

✓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

결과적으로 읽고 싶지 않은 레주메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렇다고 종종 리뷰해드리는 구독자님들 레주메가 그렇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서류에 나를 다 보여주고 싶은 욕심'

사랑을 다 퍼주시는 혜자 선생님처럼요.

하지만 🖐️ 도시락은 혜자스러울수록 좋지만 — 레주메는 다릅니다.

저도 만만치 않은 가격의 유료 강의도 결제한 적이 있었고, 영문 레주메 첨삭도 받고, 리쿠르터 지인한테 창피함 무릅쓰고 피드백도 부탁했었죠.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 '필요한 말만 하는' 레주메 한 장이 나오기까지 시행착오가 있었답니다.

3-2. 레주메 구조 — 한국식 이력서와 달라요

영문 레주메는 한국식 이력서와 구조가 달라요. 사진 첨부이 필수는 아니며, 생년월일을 적을 필요 없고, 가족사항과 같은 개인적인 정보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리쿠르터가 실제로 훑는 순서라고 알려진 흐름을 살펴볼까요?

리쿠르터가 레주메를 훑는 시간 = 단 6초

하루에 수백 장의 레주메를 받는 리쿠르터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뻥뻥하게 채워진 레주메는 읽고 싶어도 눈이 안 가겠죠.

최근 X(트위터) 자동 번역이 시행되며 타임라인에 들어가면 모든 트윗이 내 모국어로 읽히는 상황 아시죠? 모든 텍스트가 다 읽히니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똑같지 않을까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숨 쉴 수 있는 여백이 있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딱 보이는 레주메 — 한 장으로 끝내는 깔끔한 레주메와 여백 없이 뻥뻥히 텍스트가 들어차 있는 레주메 어떤 게 눈에 띄일 거라고 예상되시나요?

그래서 나온 레주메 불렛포인트 3가지 를

- ✓ 포지션 / 회사 이름 / 도시
- ✓ 나의 책임 — 단 한 줄로
- ✓ 나의 성과 — 한 줄로 끊어서. 숫자로. 최대 5개

나의 모든 패를 지금 이 서류에 다 내놓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서류 단계에서는 인터뷰에 가서 할 말의 요지만 적어내면 됩니다. 내가 할 모든 말은 인터뷰 가서 꺼내면 됩니다.

리쿠르터가 실제로 훑는 순서대로 구성해볼까요?

순서	섹션	핵심 포인트
1	Header (이름 + 직함)	이름 크게, 직함은 지원 포지션에 맞게
2	연락처	전화 · 이메일 · 도시 · LinkedIn URL
3	Professional Summary	2~3줄. 나의 경력을 한 방에 설명
4	Experience	최신순. 각 불렛 1줄로 끝내기. 숫자 필수
5	Skills	지원 JD에 나온 키워드 위주로
6	Education	학교명 · 전공 · 졸업연도만
7	Certifications (선택)	있으면 넣기, 없으면 생략 OK

⚠️ 넣지 않아도 되는 것들

- ✗ 사진 — 사진 첨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 나이 / 생년월일 — 불필요.
- ✗ 주민등록번호 / 가족관계 — 당연히 NO.
- ✗ "자기소개서" 스타일 서술형 문장 — 불렛포인트로 바꾸세요.
- ✗ 1줄 넘는 불렛포인트 — 과감하게 잘라내세요.

3-3. 1줄 불렛포인트의 파워 — 문송이 레주메로 보는 Before & After

말로만 하면 와닿지 않죠.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본 전자책 별첨으로 첨부된 "문송이 레주메"를 열어보세요.

 별첨: 문송이 레주메 (Songi Moon Resume) 이 링크를 클릭하세요.

인문대 졸업생. 바리스타 아르바이트 경험 있음. AI 트레이닝 프리랜서. 화려한 스펙은 없어요. 그런데 이 레주메는 일부러 강박적일 정도로 각 불렛포인트를 1줄 안으로 끊었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간결하게 쓰여진 레주메가 갖는 파워 — 직접 확인해보세요. 한 눈에 들어오는지 아닌지.

같은 경험인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Before (흔한 실수)	 After (문송이 스타일)
팀원들과 협력하며 한국어 음성 데이터 전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며 클라이언트의 기대치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Transcribed 200+ hours of Korean audio at >98% accuracy.
다양한 오디오 소스를 분류하고 품질 검수(QA)를 수행하며 오류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Classified and QA'd 500+ audio sources, keeping error rates under 2%.
매일 한국어로 내부 미팅을 진행하여 팀원들의 가이드라인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Ran daily 1-hour Korean briefings, improving guideline understanding by 30%.

핵심 차이 3가지

- ✓ 길이: 2~3줄 서술형 → 1줄 딱 끊기
- ✓ 언어: 한국어 서술체 → 영어 + 동사 시작
- ✓ 숫자: "노력하였습니다" → 98%, 200시간, 30% 같은 구체적 수치

3-4. 채용공고에 맞춰 커스터마이징하기 — JD 분석 실전

아무리 귀찮아도 채용공고에 맞춰 커스터마이징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솔직히 저도 하기 싫어요. 그냥 넣을 때 있어요. 그리고 떨어집니다. 서류 불합. 😂 — 사노 🖋️

JD 분석 3단계

STEP 1 JD에서 반복되는 키워드 찾기

밑줄 치거나 메모하세요. 그 단어가 레주메에 있어야 합니다.

STEP 2 내 경험 중 매칭되는 것만 앞으로

관련 없는 경험은 과감히 뒤로 빼거나 삭제.

STEP 3 동사와 숫자로 표현

"담당하였다" 말고 "Managed / Reduced / Improved + 숫자"

예를 들어, 일본어 스킬셋을 활용해 일본 리전 커스터머 서포트를 담당할 포지션에 지원한다면 — 마케팅 경험, 티칭 경험은 서류에서 덜어내세요. 딱 두 가지: 고객 그리고 서비스. 그것만 강조해도 충분합니다.

3-5. 숫자가 없으면 어떡하나요?

"사노님, 저는 이런 휘황찬란한 성과 포인트가 없는데요..."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물론 거짓말을 해서 무리수를 두면 안 되겠죠. 인터뷰에서 다 드러나니까요. 하지만 내 답변을 듣는 리스너, 즉 인터뷰어 입장에서 숫자 하나하나에 도끼를 들고 찢인지 아닌지 검열하러 오는 건 아니겠죠. 대략적인 숫자로나마 표현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숫자 뽑아내는 법

고객 응대 경험이 있다면

→ *"Handled X+ customer inquiries per day during peak hours"*

팀 미팅을 진행했다면

→ *"Ran daily briefings for a team of X members"*

정확도를 유지했다면

→ *"Maintained X%+ accuracy across Y projects"*

일정을 맞췄다면

→ *"Consistently met all project deadlines across Z months"*

상사가 일 잘했다며 어깨 다독여준 적 없을까요? 쓸 말이 없다고요? 진짜요? 지금 이력서에 빼곡히 채워진 글들은 뭐임??? — 사노 🖋️

3-6. 커버레터, 필요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 채용공고에 "Cover Letter required"라고 나와 있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커버레터 필수란 말이 없다면 저는 굳이 내지 않았어요. 낸다고 해도 읽지도 않을 거고요.

만약 써야 한다면 딱 3단락이에요. 왜 이 포지션인지 / 내 경험 중 지원 직무에 가장 매칭되는 한 가지 / 다음 단계(인터뷰)를 기대한다는 클로징.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3-7. 어디에 지원하나요? — 현직자 레퍼런스가 치트키

레주메를 드랍따 넣어 무한 광탈하는 것보다 처음에 좀 창피하더라도 치트키를 찾아보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면접은 가봐야 하니까요.

채널	활용법	팁
LinkedIn	JD 검색 + Easy Apply	"Korean speaking" 키워드 필수
Jobstreet	말레이시아 포지션 특화	KL BPO 직군 검색에 최적
Glassdoor	연봉 확인 + 지원	리뷰 먼저 읽고 지원 결정
채용 기업 공식 사이트	다이렉트 어플라이	BPO는 채용이 잦아 수시 확인
현직자 LinkedIn 콜드메시지	레퍼런스 요청	가장 강력한 치트키 — 아래 참고

💡 현직자 레퍼럴 — 왜 이게 치트키인가

현직자 레퍼럴이 채용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레주메 체커 프로그램을 높은 확률로 모면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외국계는 현직자 레퍼런스 제도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요.

실제 사노님 콜드메시지 루트:

- 관심 기업 LinkedIn People 탭 → "Korean" 현직자 검색
- 짧고 정중한 메시지 발송 (부담 없이, 거절해도 괜찮다는 뉘앙스 포함)
- 직무 궁금한 점 질문 → 자연스럽게 관계 형성
- 레퍼럴 정중히 요청해보기

생각보다 선의로 도와주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트러스트 미. — 사노 🍌

📌 쌤들 현직자랑 온라인에서 관계 형성 하는게 채용공고에 레주메 드랍하는 것보다 더 치트키일 수 있어요.. ㅜㅜ

링크드인 플랫폼에 대해 먼저 이해하고 *jobs*가 아닌 *people* 위주로 그 기업 구성원과 현직자에 대해 알아간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해보세요. 레퍼런스 요청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도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 사노 @boseenglish

📖 트위터 원본 보러가기 <https://x.com/boseenglish/status/1898017214026182687?s=20>

이걸 정말 많이 어려워하시고 채용공고에 레주메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통 경로를 잡으시는데 그 역시 좋은 방법이지만 현직자 레퍼런스만큼 갈때기 같은 레주메 체커 시스템 피해가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현직자에게 레퍼 요청하는 방법, 디엠 보냈던 방법 등 어려운 게 아니고, 스스로를 글로서, 혹은 액티비티하는 사진으로서 드러낼 줄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경험 후려치지 않으면 돼요.

🔗 링크드인에서 현직자들만 아는 정보 알아냈던 비결

(실전편 #2) 나는 줄 것이 없어도 정보를 얻어내는 간단한 방법

posty.pe/av6iq4

📌 나가는 말

레주메는 혜자스러움을 담는 게 아니에요. 레주메를 인터뷰에 가기 위한 티켓이라고 여겨보세요. 그 티켓 안에 모든 걸 다 담을 순 없습니다. 나에 대해 다 드러내고 싶은 욕심을 억제하고 핵심만 담는 것. 테크니컬하게는 1줄이 넘지 않게.

JD에 맞춰 커스터마이징하고, 숫자로 말하고, 현직자에게 콜드메시지 보내는 것. 이 세 가지만 해도 서류 통과율이 달라집니다. 별첨 레주메 꼭 열어보세요. 간결함의 힘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별첨: 문송이 레주메 \(Songi Moon Resume\) 이 링크를 클릭하세요.](#)

다음 파트 예고 

PART 4 —

면접 완전 정복: 트릭키 퀘스천

"Tell me about yourself"부터 "Why do you want to leave your current job?"까지 — 한국어라는 희귀언어를 이용하여 해외 취업에 도전할 때 '한국어 스페셜리스트' 직무 인터뷰에서 반드시 나오는 질문들과 실제 답변 스크립트를 풀어드릴게요.

본 **PART3** 핸드북은 전체공개입니다. 가급적이면 개인소장 부탁드립니다 🙏

이 전자책은 총 15개 파트로 나눌 예정이며, 독자님들이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도록 시간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업로드 합니다.

채널: 포스타입 "문과졸업생의 잘먹고사니즘" | 문의 및 후기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